



특유의 뒷심 발휘... '멜버른 반란'은 계속된다

■ 박태환 세계수영선수권 자유형 200m '동'
1분46초73 기록...아시아 신기록 경신
미국 펠프스 1위...세계신기록도 달성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이 또 파란을 일으켰다.

이틀 전 제12회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정상에 올라 전 세계 수영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박태환은 27일(한국시간) 호주 멜버른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펼쳐진 같은 종목 200m 결승에서 1분46초73에 물살을 갈라 1분43초86으로 세계기록을 갈아치우며 우승한 마이클 펠프스(미국), 피터 반덴 호헨반트(1분46초28)에 이어 3위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한국 수영 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박태환은 이틀만에 동메달을 추가, '멜버른의 반란'을 이어갔다.

특히 박태환의 이날 기록은 지난 해 12월 도하아시안게임에서 자신이 작성한 아시아

기록 1분47초12를 0.39초 앞당긴 것이다.

펠프스도 최근 은퇴한 이안 소프가 2001년 세운 1분44초06의 세계기록을 0.20초 앞당기며 우승. 2005년 캐나다 몬트리올 대회에 이어 자유형 200m 2연패를 달성했다.

출발 반응은 역시 좋았다. 8명의 결선 진출자 가운데 가장 빠른 0.66초.

2번 레인에 선 박태환은 출발신호와 함께 힘차게 물속을 뛰어들어 팔을 휘젓고 발을 굴렀지만 폭발적인 힘을 무기로 앞으로 치고 나가는 단거리 강자들에게 뒤로 밀렸다.

50m 턴을 할 당시 기록은 25초41으로 펠프스(24초47)와 호헨반트(24초53), 마시밀리아노 로솔리노(25초03·이탈리아), 케릭 몽크(25초09·호주)에 이어 5위.

100m 구간까지도 5위에 처져 메달권에서 다소 밀려있던 박태환은 150m 구간에서

순위	선수명 (국가)	50m	100m	150m	200m
1	마이클 펠프스 (미국)	24.47초	51.00초	1분07.72초	1분43.86초
2	피터 반덴 호헨반트 (네덜란드)	24.53초	51.17초	1분07.80초	1분46.28초
3	박태환 (한국)	25.41초	52.74초	1분09.50초	1분46.73초
4	켄릭 몽크 (호주)	25.09초	52.92초	1분09.80초	1분47.02초
5	마시밀리아노 로솔리노 (이탈리아)	25.03초	52.02초	1분09.70초	1분47.09초
6	장판 (중국)	25.46초	53.22초	1분10.80초	1분47.53초
7	롤 베어만 (독일)	25.06초	53.17초	1분10.68초	1분48.09초
8	나탈라 카시오 (이탈리아)	25.87초	53.87초	1분11.00초	1분48.19초

1분19초51로 몽크(1분19초88)를 제치고 4위로 치고 올라왔다. 하지만 펠프스(1분17초73), 호헨반트(1분18초16), 로솔리노(1분19초15)에는 뒤져 있었다.

마지막 50m. '역전의 명수' 박태환이 다시 폭발적인 스피트로 괴력을 발휘하더니 마침내 3위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개월간 근력 키운게 큰 힘

■ 박태환 뒷심 어디서

박태환이 27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난 2개월 간 근력을 집중적으로 키웠기 때문이다.

자유형 200m는 단거리 종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엄청난 스피드로 치고 나가는 것이 특징. 장거리전문인 박태환에게는 맞지 않았다.

전날 열린 예선, 준결승에서도 박태환은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마이클 펠프스(미국)와 피터 반 덴 호헨반트(네덜란드) 등에 밀려 5위에 그쳤다.

박태환이 스피트를 내봤지만 이미 속도가 붙은 경쟁자들을 따라잡기 힘들었다.

결승에서도 세계신기록을 세운 펠프스와 호헨반트가 초반부터 치고 나왔지만 박태환은 하위권으로 처졌다.

그러나 박태환은 150m를 통과한 뒤 마지막 스피트에서 2개월 동안 키운 근력을 최대한 발휘해 값진 동메달을 차지했다.

지난 해 12월 도하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박태환은 근력이 형편없이 떨어진 상태였다. 한 달 간 운동을 하지 않고 '폭' 쉬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준승 박태환과 후원계약을 한 수영용품 전문 브랜드 '스피드'는 김기홍 대한운동사회 선임연구원을 웨이트트레이너로 선임해 근력을 집중적으로 키우도록 했다.

관을 거쳐 멜버른까지 2개월 간 해외전지훈련을 하는 동안 하루 평균 1시간30분 가량 체력훈련을 실시했다.

팔굽혀펴기는 1분에 45개를 하던 것이 63개로 늘어났고 턱걸이도 1분에 6개를 하던 것이 17개로 증가했다. 바벨을 들고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도 예초에는 90kg를 들었지만 2개월 후에는 120kg를 들 수 있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리톱 출격

한국-우즈베크 올림픽 예선
오늘 오후 8시 안산서 격돌

이근호(대구)-양동현(울산)-이승현(부산) 3총사가 '아시아의 유럽' 우즈베크스탄 공략을 위해 최전방 스리톱으로 출격한다.

팀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축구대표팀은 28일 오후 8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우즈베크스탄과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F조 3차전 홈 경기를 치른다.

지난 달 28일 예선과 홈 1차전에서 1-0으로 신승을 거둔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2차전 원정에서 한동원(성남)의 연속골을 앞세워 3-1 대승을 거둬 상승세에 올랐다.

이에 따라 한국은 2차 예선의 반환점을 돌게 되는 우즈베크스탄전 승리를 통해 3연승, 각 조 2위까지 주어지는 최종예선 티켓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각오다.

우즈베크스탄 역시 예선 1, 2차전에서 UAE(2-1승)와 예선(1-0승)을 연속 격파하고 2연승을 거둔 터라 쉽게 승부를 점치지



어려운 상황이다.

베어백 감독은 이근호-양동현-이승현 스리톱이 책임진다.

최전방 원톱을 맡게 될 양동현은 예선과 1차전에서 박주영(서울)의 '킬 패스'를 받아 결승골을 터트렸고, 이근호와 이승현은 빠른 발과 돌파력을 앞세워 좌우측면 공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왼쪽 날개 이근호는 UAE전에서 왼쪽 윙백 최철순(전북)과 위치를 바꿔가면서 측면 공격을 풀어나갔고, 이승현 역시 빠른 발을



2008 베이징올림픽 축구예선 우즈베크스탄전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올림픽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파주 NFC에서 열린 훈련에서 달리기를 하며 가볍게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활용한 적극적인 측면 침투로 골 맛까지 봤다. 베어백 감독은 26일 자체 연습경기에서도 이근호와 이승현을 내세워 측면 공격을 맡겼다. 또 박주영의 공백은 베어백 감독이 인정한 '성실맨' 한동원이 맡는다.

양동현의 뒤를 받치는 새도 스트라이커 한동원은 UAE전에서 2골을 뽑아내 베어백

호의 공격 대안으로 떠올랐고, 베어백 감독은 "자만심 없이 연습에 열중한다"고 칭찬했다.

한동원은 뛰어난 골 결정력과 위치선정 능력을 앞세워 2004년 프로축구 K-리그 2군리그 MVP와 이듬해 득점왕까지 차지한 차세대 공격수다. 가끔 터져나오는 필러주

기 패스도 일품이다.

중앙 미드필더는 백지훈(수원)과 오장은(울산)이 주축을 이루는 가운데 185cm의 큰 키를 앞세워 공중볼 장악 능력이 뛰어난 김성용(서울)이 자리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우즈베크 어떤 팀?

FIFA 랭킹 53위
유럽 스타일 축구

한국축구의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F조 3차전 상대인 우즈베크스탄은 3월 현재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3위로 한국(48위)에 이어 '아시아 5강'을 이루고 있는 강팀이다.

성인대표팀의 역대 전적에서는 한국이 3승1무1패로 앞서고 있지만 올림픽대표팀이 우즈베크스탄과 맞붙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즈베크스탄은 2차 예선 1차전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상대로 2-1 승리를 거뒀고, 2차전에서는 예멘을 1-0으로 꺾으면서 한국(4골1실)과 동률(승점6)을 이뤘지만 골득실차로 2위를 지키고 있다.

베어백 감독이 분석한 우즈베크스탄은 뛰어난 체력을 바탕으로 동유럽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다.

우즈베크-UAE전 비디오를 지켜본 베어백 감독은 "기술이 좋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게 장점"이라며 "쉽게 이기기 어려운 까다로운 팀"이라고 경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